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 인증 빨라진다

도,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45→15일로 단축 서류·현장 평가로 판단...신청도 상시 가능

전남산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 인증이 빨라진다.

전남도는 6일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가 품목을 추가 인증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처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와 현장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던 것을 서류·현장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결과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도 기존 매년 5월

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417개 인증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곡성 배추김치 생산업체 ‘옥과맛있는김치’ 김권태 대표는 “기존에는 새로운 김치를 추가 인증받으려면 상·하반기에 있던 신청 기간에 맞춰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며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빨라져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지사 품질 인증 사용허가 업체에 1천만원의 포장 디자인 제작비와 225만원의 자가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며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우선 입점 혜택도 준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 품질 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지역 417개 업체 1천 919개 제품이 도지사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 업체들은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청유자 이너뷰티 제품 ‘유주컷’ 개발 도농기원·전남대학교 공동 개발 성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전남지역 특화작목인 유자를 이용해 이너뷰티 제품인 ‘유주컷’(사진)을 전남대학교와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수확기에 접어들기 전 초록색의 청유자에는 일반 노란색 유자에 비해 혈관 강화 작용으로 피부 미백에 좋은 헤스페리딘과 나린진 함량이 2.5~6배 높게 함유돼 있으며 생리활성 성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는 청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활용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확 전 과다 착과된 청유자를 이용해 최근 먹는 것을 통해 피부를 속부터 관리한다는 개념인



‘이너뷰티’ 제품들이 각광 받고 있는 추세에 맞춰 2년 연구 끝에 ‘유주컷’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유주컷’ 제품은 청유자·황유자 추출물 분말 총 30%를 함유하고 있다. 특히 콜라겐과 다이어트 성분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등을 첨가해 제조한 타블릿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재정기자

친환경농산물 판매 최초 100억 돌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기념행사 개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이하 친환경물류센터)가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달성했다.

친환경물류센터는 6일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달성해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친환경물류센터는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종합물류센터로 2017년 개장해 농업경제지주가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 친환경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남 학교급식 등 지역 내 소비 37%의 2배에 가까운 63%를 경기·경북·대전 등 타 시도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협 판매장, 대규모 친환경 유통업체 등 대외 판매로 공급,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74개소에 이르는 대외 판로와 156개 농가 공급처를 확보했다.

특히 올해 개장 5년 차인 9월 기준 전년 동기(60억원) 대비 67% 성장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처음으로 달성했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개장 5년 만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달성하고 최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제공>

친환경물류센터는 올해 말까지 150억 원 판매액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양상대 센터장은 “전남도의 청년 친

환경 계약재배 확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친환경농가 조직화와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이 대우받고, 농

촌이 희망이며, 농업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스마트농업 체험 모집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화분 만들기 등 선착순 50명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녹아든 스마트한 특별 체험과 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키로 하고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코딩과 식물이 함께하는 창의융합 감성 체험인 ‘플랜투이노 화분 만들기’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하도록 인공지능 키트로 교육하는 ‘DIY 단독형 스마트팜 만들기’ 등이다. 코딩을 무료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이번 체험과 교육 행사는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주말인 23-24일, 30-31일 4일간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www.jae.or.kr)에 하면 되고 체험비는 무료다.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으니 국제농업박람회장에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참여하세요”

도, 61억 규모...제조·가공 활성화 소비 촉진

전남도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2022년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농식품 제조·가공 인프라 구축 4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쟁력 지원 6억원, 전통식품산업 지원 15억원 등 3개 분야 총 61억원이다. 분야별로 제조·가공시설, 장비 및 시제품·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업에 등록된 전남 소재 법인 또는 사업체 중 매출자급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농식품 제조·가공 인프

라 구축 시 5억원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쟁력 지원 시 1억원 이내, 전통식품산업 지원 시 5억원 이내다.

참여를 바라던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오는 8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접수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1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2년 예산 확정에 따라 내년 1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농기계 임대 2년 연속 전국 최고

우수 시·군 50곳 중 11곳...장성 1위·영광 2위

전남도는 6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50개 우수 시·군 중 전남에서 11곳이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정 시·군은 장성·영광·신안·곡성·해남·화순·무안·영암·나주·강진·순천

이다. 특히 장성은 전국 1위, 영광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발작물 주산지 임대 농기계 지원

과 영농철 공휴일 휴무 없는 임대사업소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책도 농업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각 2억원 씩 총 22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해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전국 146개 시·군, 469개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전문인력 확보, 발농업 기계화율, 수요자 만족도 등으로 전국 상위 50개 시·군을 선정한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에과장은 “올해 성과는 전남도와 시·군, 지역 농업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임대사업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